

## 서 평

로트의 『유럽으로의 길』과 유럽 통합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의의

노명환

### I

오늘날 유럽 연합(EU), 즉 유럽 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 연합은 이제 세계 경제·정치 무대에서 하나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 공동체의 발전은, 세계사적으로도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유지되어 온 주권국가 단위의 국제질서에 대변혁이 일고 있음을 시사하는 상징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인구에 회자하고 있는 ‘세계화’의 현상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할 때도 유럽 통합의 역사를 분석하는 일을 비켜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작금의 세계화는 지역협력 내지는 통합을 수반하는 하나의 지구 공동체 형성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지역통합의 전형이 유럽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의가 큰 유럽 공동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특히 공동체의 성립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즉, 역사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독일 에센 대학의 역사학자 로트(Wilfried Loth) 교수의 저작 『유럽으로의 길』(*Der Weg nach Europa*, Göttingen 1990)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유럽통합의 초기과정, 즉 양차 대전으로부터 유럽 경제 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조약이 체결되는 1957년까지의 유럽 통합사 연구서이다. 이 저작은, 특히 1980년대에 공개되기 시작한 자료들을 통시적(通時的)으로는 최초로 검토한 결과를 담고 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1950년대 초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sup>1)</sup>가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30년의 기간에 해당되는 1980년대 초까지는 주로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에 의해 유럽공동체 연구가 이루어졌다. 역사학자들이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유럽 공동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sup>2)</sup> 어떤 역사적 사건의 발생 후 30년이라는 기간은 역사학자들에게 중요

1) 여기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유럽 6개국이 참여하였다.

한 의미를 띤다. 공식문서들이 공개되지 않고 보관되어야 하는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야 이 문서들은 역사학자들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사료가 된다.

## II

유럽 공동체의 성립 내지는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도달한 연구성과는 네 종류의 이론 정립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연방주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그리고 현실주의 이론이다. 로트에 따르면, 연방주의는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유럽을 강조하고, 1·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민족국가 개념을 상대화하며, 유럽 연방 공화국을 창설하고자 하는 사상 및 운동이다. 이를 유럽 통합의 근본적인 추진력으로 파악하는 인식론 또한 연방주의이다. 기능주의는, 처음에는 제한된 특정 분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해, 그 뒤 점차 넓은 분야, 즉 경제 전분야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협력의 기능적 파급효과를 통해 정치 통합이 달성된다는 이론이다. 신기능주의는 환경·복지정책 등 경제·기술적인 측면의 기능적 협력과 정치적 결정이 분리될 수 없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의 발전 추진력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현실주의 이론은, 통합이란 각 민족국가의 고유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고, 각 민족국가의 존재를 부인하는, 즉 각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공동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로트는 이러한 이론들이 냉전이라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성과 이데올로기를 띤 지적 배경에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역사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에 덧붙여 역사적인 연구의 의의를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어떻게 유럽 공동체가 기능하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원동력이

2) 예를 들어, 연구서로서는 Raymond Poidevin (Hrsg.), *Histoire des débuts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mars 1948 - mai 1950)*, Bruxelles 1986; Klaus Schwabe (Hrsg.), *Die Anfänge des Schuman-Plans 1950/51*, Baden-Baden 1988; Enrico Serra (Hrsg.), *Il rilancio dell'Europa e i Trattati di Roma*, Milano 1989. 사료선집으로는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I: *Continental Plans for European Union, 1939-1945*, hrsg. von Walter Lipgens, Berlin/New York 1985; vol. II: *Plans for European Union in Great Britain and in Exile, 1939-1945*, hrsg. von Walter Lipgens, Berlin/New York 1986; vol. III: *The Struggle for European Union by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 Group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1945-1950*, hrsg. von Walter Lipgens und Wilfried Loth, Berlin/New York 1988; vol. IV: *Transnational Organiza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 Groups in the Struggle for European Union, 1945-1950*, hrsg. von Walter Lipgens und Wilfried Loth, Berlin/New York 1990.

유럽 공동체의 성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유럽 공동체는 어떠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는 데서 역사학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역사적인 연구에서 충분한 정보 분석을 통해 성급한 결론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유럽 공동체가 성립되었으며, 이 공동체 내에 어떠한 장기적인 이해관계와 우연적인 관련 구조가 존재하며, 어떠한 개인적인 업적이 현재의 공동체 구조를 이루는 데 작용하였으며, 그리고 어떤 사상 또는 계획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중간에 머무르고 말았으며,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기에 놓여 있던 공동체의 기능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한계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유럽 공동체의 발전방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유럽 통합사의 연구는 유럽 공동체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파악하고 다루는 데서 비역사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는 사고방식을 교정시켜 줄 것이다. 유럽 통합사 연구를 통해 유럽의 과거가 새롭게 기억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실현된 공동체에 대한 대안들, 즉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유럽 통합 방안들을 성찰해 봄으로써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통합 정책이 부딪쳐야 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사색을 현실감있게 해 줄 것이다. 유럽 통합 과정이 기반하고 있는 상이한 민족국가적 행동양식들을 이해하는 작업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이해 촉진을 위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 통합 과정이 어느 정도나 공동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로트는 유럽 공동체의 형성기를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와 유럽 경제 공동체의 성립시기로 보고 있는데, 1987년부터 로마 조약에 관한 비공개 문서들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료들에 대한 작업을 그의 연구에 반영하였다. 로마 조약은 1957년 로마에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에 의해 체결되었고, 유럽 경제 공동체(EEC)를 성립시켰다.

### Ⅲ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의 경험과 전후 현실, 제 삼 세력사상, 마샬플랜의 유럽, 유럽 각의, 슈만 플랜, 유럽 방위 공동체의 드라마, 로마 조약의 성립.

로트는 6장으로 구성된 이 저작을 통해 유럽 공동체의 성립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국제체제의 세 전환기와 관련시키고 있다.

첫번째 단계: 제1차 대전 후 유럽인들은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품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데 전력하였다. 이들은 주권 국민국가에 기반한 유럽의 국제체

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었다. 이들은 유럽 통합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유럽 연방' 운동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은 민족주의적인 반격과 세계 경제공황으로 야기된 문제들에 가려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유럽의 각국은 공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민족주의 성격을 띤 정책들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두번째 단계: 유럽의 국민국가들은 2차 대전을 통해 쇠락했다. 유럽이 주도하던 국제 무대에 대립하는 두 초강대국, 즉 미국과 소련이 들어섰는데, 유럽은 더 이상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왜소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 통합을 위한 '유럽 연방' 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유럽 통합을 통해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독립된, 더 나아가 두 초강대국의 대립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유럽을 창출해야 한다는 '제 삼 세력운동'은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이들에 따르면 유럽 통합은 세계의 평화와 평등의 보장과 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유럽통합에 대한 연방주의적 해석은 유럽 통합의 근본적인 동인을 연방주의 사상과 운동에서 찾는다. 그런데 유럽 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어느 것도 그들 스스로는 해낼 수 없다는 현실은 그들에게 좌절에 찬 긴장관계를 산출해 냈다.

세번째 단계: 전쟁중에 형성된 연합국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후 급이 가고, 점차 동·서간의 긴장관계, 즉 냉전으로 발전하면서 유럽 통합 운동 방향이 유럽인들이 원래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잡히기 시작했다. 마셜 플랜 실시과정에서 나타나듯 유럽 통합은 서유럽에 한정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유럽의 분단을 의미했다. 유럽 통합은 원래 독일을 견제하여 유럽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서유럽 통합은 동·서 냉전의 방파제로서 대서양 공동체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유럽의 군사·정치 공동체가 빠른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군사·정치적인 차원의 급격한 통합 노력은 유럽인들에게 또한 뿌리깊게 잠재해 있는 민족주의 정서를 거세게 불러일으켰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5장과 6장에서 분석되고 있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합 노력은 결실을 맺어 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그의 분석을 보면, 서유럽인들은 유럽통합을 통해 세계시장에 더욱 빨리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유럽시장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당시 서유럽인들은 전후 복구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 탈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공동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시장과의 유대를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경제의 각 부문간 통합을 이루고, 그 파급효과에 의해 경제 전반에 걸쳐 통합을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 통합은 또한 그 파급효과를 통해 정치통합을 점차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유럽 통합에 대한 기능주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적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 이해관계가 정치 통합의 목표에 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영연방을 중시하는 영국의 국민경제, 그리고 1952년 심각한 지불위기를 겪고 있던 프랑스 경제계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선호하지 않았다. 정도는 약하지만 서독의 경제도 세계시장에서 수출기회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 통합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통합을 통해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았는데, 이러한 분야는 정치적 통합 노력이 벽에 부딪칠 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하여 유럽 통합에 열의를 보였다. 이탈리아는 유럽에 자국의 노동력을 수출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유럽 통합을 통해 이탈리아는 자국의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한 발전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 현상은 다시 한번 기능주의적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현상을 기능주의적 통합의 추진력으로 파악하는 데 반대하고, 자국의 민족적 경제이익이 목표이고 통합은 수단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들이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 해석의 뿌리는 '유럽 통합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동력'이라는 인식의 뿌리와 함께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다.

로트가 그의 유럽 통합사 연구를 통해 도달한 이러한 이론의 검증 외에 중요한 결론은 유럽 통합의 추진력이, 유럽인들이 정치적 통합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일치될 때만 달성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의지력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슬기롭게 실천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1950년대에 이루어진 6개국 사이의 공동체 형성을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나, 경제적인 동기도 또한 중요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상을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일치시키려는 유럽인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즉, 그는 유럽 공동체의 성립이 연방주의적 이상을 현실주의에서 파악되는 현상에 기능적으로 접목하는 유럽인의 이상주의적인 그리고 동시에 현실정치의 감각을 갖춘 정치지도력에 기인했다고 본다. 그는 유럽 통합을 위해 공로가 큰, 즉 뚜렷한 역사관과 정치적 신념 그리고 결단성을 소유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조절하는 데 진술적으로 슬기로운 인물로 특히 장 모네, 로베르 슈만, 콘라드 아데나워, 파울-헨리 스파크와 대중적으로 비교적 덜 알려진 레옹 블룸, 요한 빌헬름 베이엔 그리고 처음에는 유럽 통합의 반대자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찬성자로 알려진 샤를 드골, 어네스트 베빈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로트는 통합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들이 인물의 업적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점은 역사연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그는 연방주의, 기능주의 그리고 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국가이익의 추구등이 유럽 통합을 위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주요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실현되지는 않았

지만 큰 영향을 끼친 사상들, 예를 들어 '제삼 세력 사상'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는 유럽 통합은 어떤 이론의 기능적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보다는 신념과 정치력을 겸비한 유럽인들의 진지한 노력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유럽 통합의 길에 있어서 이론적인 차이점은 본질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고 본다. 로트는 특별히 현실주의 이론, 대표적으로 밀워드(A. Milward)의 현실주의 이론<sup>3)</sup>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로트는 공동체 기구의 부분적이거나 초국가적인 현실을 엄연한 현실로서 강조한다. 그는 그 자신 스스로 독일인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유럽인으로서 유럽적인 관점에서 유럽 통합사를 연구·서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은 이 책의 뒷표지 광고 문구에서도 명료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여러 서평에서 주목되고 있다. 넓게 본다면 그는 이 저작을 통해 역사란 이론과 기능에 의해 기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용시키고 실현시키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의 사관을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 IV

로트는 그의 역사적 연구의 결과 유럽 공동체 성립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럽 통합은 첫째 독일의 경제력을 유럽에 견고하게 귀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이웃 국가들 특히 프랑스에게 독일에 대한 공포를 덜어 주었고, 독일은 이웃 국가들의 의심과 감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때문에 석탄철강 공동체 조약은 유럽내 평화 조약을 의미했다. 이러한 평화 조약이 프랑스 측에서 볼 때 독일에 대한 점령정책이 해제되기 전에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의미를 가졌다. 이 조약은 1957년의 경제 공동체의 성립을 통해 좀더 강화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유럽은 초강대국들에 대해 그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유럽의 이러한 잠재력은 제한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합은 유럽의 전후 재건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 있어서 근대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독보다 생산설비가 낙후되어 있던 나라들이 서독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국가 원리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계기를 새로 생긴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조직화했다. 통합된 유럽에서 경제질서가 어떠한 성격을 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냉전의 상황에서 자

3) 그의 현실주의적 해석은 Alan S. Milward,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1951*, London 1984에 잘 나타나 있다.

유시장경제 원리가 압도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 자유시장 원리도 그 동안 유럽 국가들이 이론 사회국가적인 업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신기능주의적인 측면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로트는 신기능주의적인 해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유럽인의 노력, 즉 각 인물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사회의 동질화(Angleichung)의 경향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났다. 어떤 경우는 통합 전에 시작된 현상이 가속화되기도 했다. 이것은 유럽인들이 공동의 가치관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가치관은 전쟁의 경험과 대중의 시대에 서로 다른 전체주의 지배 경험, 그리고 공동의 저항 운동을 통해 유럽 통합 운동을 전개하여 왔던 경험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유럽인들은 유럽 공동의 역사인식, 즉 헬레니즘 문명과 기독교 문화 그리고 중세 유럽 세계라는 공동의 문화 유산에 눈을 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의 경험들은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유럽인들이 민족국가가 가진 모순들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그리고 민족국가의 의미가 더 이상 신성시될 수 없다는, 신념과 단호한 결의, 그리고 냉철한 현실 정치력을 갖게 된 데 있었다. 이러한 토양위에서 유럽 공동체 의식, 즉 유럽 시민의식이 성숙되었다.

## V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입문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방대한 연구내용을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간결하게 압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때문에 이 분야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책의 의도와는 달리, 특히 외국의 독자들은 이 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리라 본다.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사료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다. 각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특히 통계수치 등을 통한 계량구조적 관계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럽 통합사상가 내지는 이론가들 각각이 어떤 이론을 전개했는지가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이 이 책을 일반 독자에게 소개하는 서평자가 느끼는 아쉬움이다.

노명환, 한국외대 강사

주소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장APT 4-803

Tel : 943-5735(H)